

樞密公、忠憲公 양대세사 봉행

장단 하포리 단소에 250여명 참제



▲ 추밀공 단소에서 추향이 봉행되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옛 장단군 진동면 하포리 현암玄巖 임진강 북안의 단소壇所에서 추밀공파의 파조派祖 시조 후 10세世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 휘 수평守平과 그 아드님 충헌公忠憲公 휘 위 양대의 2009년 세사歲事가 그 정일定日인 10월 18일, 셋째 일요일 11시에 봉행되었다.

추밀공파중회에서는 서울의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뒤 전철 5호선 8번 출구 앞에 2대의 전세버스로 교통편을 마련하였고 당일 오전 8시 15분에 출발하여 1시간쯤 지나서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의 임진강 전진교前進橋 남단에 도착하였다. 전진교 남단 집결처에는 파중회의 전세버스 외에 지방에서 문

중별로 동원한 전세버스 2대가 더 올라오고 개별 승용차편으로 올라오는 후손들이 속속 모여들었는데 그러한 참제원은 모두 250여 명에 이르렀다. 민통선 출입수속을 마치고 도강하여 후손들이 단소에 이르렀고 이어 준비해간 제물이 진설되었다. 진설은 종이에 그린 진설도를 상석에 펼쳐 놓고 그

위에 각제물을 배열하였고, 권혁승權赫昇 중회장이 향례에 앞서 확성기로 인사말을 겸해 공지사항을 말하였다.

공지사항은 제물 진설 등 행례 절목을 중회 임원회의에서 의정한대로 준행한다는 것, 행례에 집례의 홀기에 따라 경건히 임해줄 것, 추밀공·충헌공 양대 제향의 예필 후에는 계하로 내려가 음복을 겸한 중식을 하고 중식 후에는 화산부원군의 신도비 제막식이 조역의 진입로 초입에서 있으니 빠짐없이 참여하여 줄 것 등이었다.

산신제가 먼저 거행되고 권혁로權赫魯 집례의 집전에 앞서 당부의 말에 이은 창홀로 제집사가 취위하여 행례가 봉행되었다. 양대 향사의 헌관·집사자 명단은 다음과 같았다.

● 추밀공 향사

초헌관 : 권선우權善瑠
아헌관 : 권호준權鎬俊
종헌관 : 권혁봉權赫鳳

집례 : 권혁로權赫魯
축관 : 권영준權榮俊
진설 : 권의철權義喆
봉로 : 권오봉權五奉
봉향 : 권영면權寧冕
봉작 : 권용찬權容贊、권동원權東遠
전작 : 권봉원權鳳遠、권박원權泊遠
사준 : 권우식權虞植

● 충헌공 향사

초헌관 : 권병선權炳善
아헌관 : 권영환權寧桓
종헌관 : 권송웅權松雄
집례 : 권혁로權赫魯
축관 : 권영준權榮俊
진설 : 권의철權義喆
봉로 : 권오봉權五奉
봉향 : 권영면權寧冕
봉작 : 권혁복權赫福、권동원權東遠
전작 : 권성오權聖五、권박원權泊遠
사준 : 권규택權揆澤
<사진 권奇允·글 권在琮>



▲ 충헌공의 향사가 봉행되고 있다.

길창부원군 昌和公 추향

파주시 진동면 서곡리 묘소에서



▲ 창화공의 추향을 봉행하고 있다.

경기 옛 장단군長湍郡인 파주시 진동면 서곡리 민통선내에 소재하는 시조후 14세世 고려 찬성사贊成事 길창부원군吉昌府院君 창화공昌和公(휘 준準)의 추향이 10월 25일에 봉행되었다. 당일 아침 9시에 서울의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출발하는 전세버스가 마련되어 대기하고 있었으나 본방후손의 참여도가 저조하여 탑승인원이 10여명에 불과하였다. 되도록 참제원이 많이 동원되기를 바라며 향사 준비와 주선에 애쓰는 중회장과 집행

부의 마음이 초조해 보였으나, 파주 임진강에 이르러 북진교 남단에서 민통선 출입수속을 마치고 서곡리 현지 창화공 묘하에서 하차하고 보니 각지역에서 별도의 교통편으로 속속 모여든 참제원이 그다지 적지가 않아 이윽고는 60여원에 이르렀다. 화성의 비봉에서 후손 12인이 승용차편으로 내도하였고 전북 순창 문중에서는 새벽 6시에 출발한 차량편을 이용해 20여명이 참제하고 있었고 중보의 안내광고를 보고 찾아온 후손도 경기 안산에서 5명, 화

성 마도면 쌍송리에서 5명이와 있었다. 권병문權炳文 총무의 말에 의하면 창화공 향사에는 산하 8개 지파 문중에서 참여하며 비축된 종재가 없기 때문에 제수비용도 각지파문중으로 할당하여 염출하는 헌성금으로 충당한다 하였다.

창화공의 향사는 같은 장단군 진동면 민통선내에 위치한 추밀공樞密公 단소의 향사일 다음 일요일인 10월 넷째 일요일을 정일定日로 하여 세일사歲一事를 행하고 있는데 근년에 향사일마다 비가 와서, 묘하에 실내행사로 대체할 수 있는 재사 같은 구조물이 전혀 없는 지역에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날은 일기가 매우 좋았다.

본행사에 들어 권혁봉權赫鳳 씨 작헌으로 후토제后土祭를 먼저 올리고 창화공 묘전에 제물이 진설되었다. 권혁동權赫東 집례는 행사에 들어가면서 향례의 홀기笏記에서 참신례參神禮가 강신례降神禮에 앞서 행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제례의식이 대개 가가례家家禮로서 문중과 집안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만큼 창화공의 향사는 기존의 홀기대로 행하겠으니 이의가 있더라도 양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묘제墓祭에서 참신과 강신 중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일단 기존의 홀기에 따르기로 하고 집

례의 창홀에 따라 향례가 봉행되었다. 이날의 헌관 집사자 명단은 다음과 같았다.

초헌관 권영의權寧宜
아헌관 권두연權淵
종헌관 권혁채權赫采
축관 권영부權寧夫
집례 권혁동權赫東
진설 권혁봉權赫鳳
찬인 권남식權南植
집주 권성호權成浩
봉향 권선식權善植
봉로 권복식權福植
봉작 권강식權康植
전작 권혁환權赫煥

음복을 겸한 중식을 마친 후 중회 정기중회에 들어가, 권병선權炳善 중회장은 ‘문헌이라든가 보첩 내역을 보면 창화공의 업적은 지대한데 후손들이 이처럼 훌륭한 현조를 위해 갖춰 놓은 것이 없다. 중회는 회

장단 회비 10만원, 종원회비 3만원 및 찬조금으로 이끌어 나간다. 해마다 추향시 차량을 1대 대절하는데 탑승 인원이 자꾸 감소하여 그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숙원사업인 신도비를 세우려고 하나 그 세울 부지조차 매입할 여력이 없다. 신도비 자체만도 수립하는 걸적을 내보니 4천여만원이 든다. 한 해 2백여만원 정도로 중회 살림을 이끌어 나간다. 천여만원 예금을 해놓고 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한 참제원이 다음에 다른 후손을 1명씩만 데리고 오면 그 규모가 갑절로 되지 않겠는가. 오늘 헌성을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는 내용으로 인사말을 겸해 중회의 발전에 대한 소감을 피력하였다.

<사진 권奇允· 권在琮>



▲ 초헌관 이하가 부복한 가운데 축문이 봉독되고 있다.